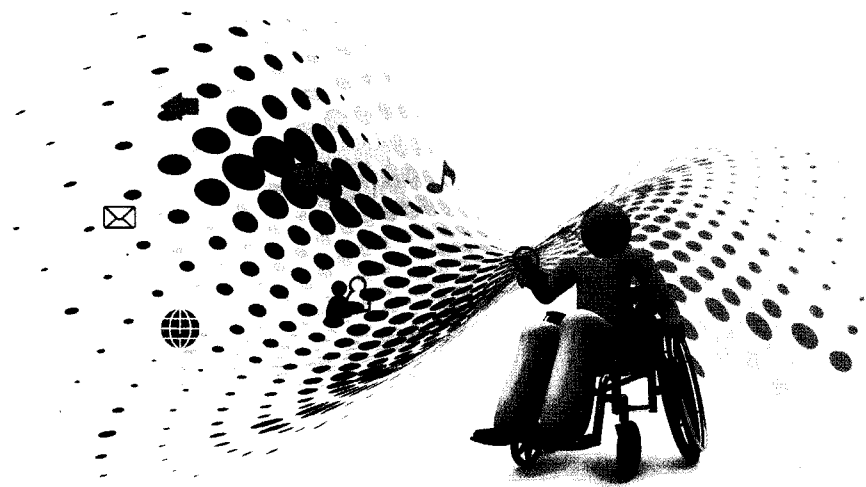


#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현준호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간사, NIA 정보접근지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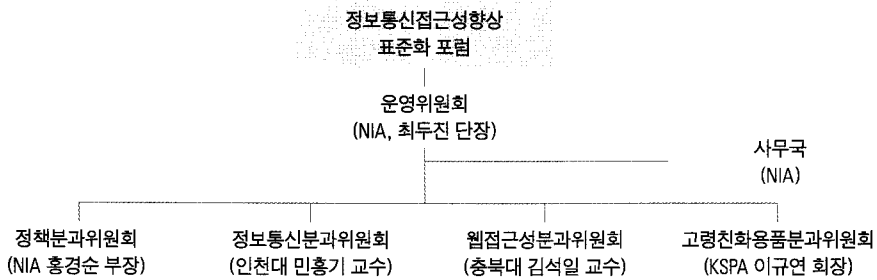
## 1. 머리말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과 ISO, ITU, W3C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표준을 개발하였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부조달 관련 법 등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한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 IBM,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선진국과 국제 표준화 기구들의 접근성 표준화를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맞는 접근성 표준 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2000년도 초반에 형성되었다.

이에 장애인, 노인 등이 비장애인, 젊은이 등과 동등하게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Accessibility)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2002년 5월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이 창립되었다. 학계, 산업계, 장애인단체, 연구계, 언론계 등의 이해관계

자들로 구성된 본 포럼은 웹, 금융자동화기기, 소프트웨어, 휴대폰 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본 포럼에서 개발한 웹 접근성 지침은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웹 접근성 의무화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도 장애인 차별 금지법 상의 장애인의 금융 서비스의 차별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본 포럼에서 개발한 표준이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9월에는 모바일 환경에서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정부 주도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2011-38호, 2011. 9. 22.)'을 개발하여 행정안전부 고시로 제정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 고에서는 포럼 현황, 접근성 표준화 추진 현황, 2011년도 연구 목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조직도

〈표 1〉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주요 연혁

연도	주요 활동	연도	주요 활동
2002년	• 포럼 창립(5월)/웹사이트 오픈(7월) •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실태조사	2007년	• 포털 사이트 접근성 실태조사(9월) •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 KICS 국가표준 제정(10월)
2003년	• KADO로 사무국 이관(1월) • 웹 접근성 자동 평가도구인 'A-Prompt' 한국어 버전 개발(7월)	2008년	• APCHI2008 국제 세미나 개최(7월) •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 TTA 단체 표준 제정(8월)
2004년	• 정부 홈페이지 접근성 실태조사(5월)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TTA 단체 표준 제정(12월)	2009년	• NIA로 사무국 이관(5월) • UN-ESSCAP과 공동으로 개도국 공무원 접근성 교육 과정 운영(10월)
2005년	• 접근성 평가프로그램(KADO-WAH) 개발 및 보급(4월)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KICS 국가 표준 제정(12월)	2010년	• W3C WAI 의장 등이 참여한 국제 세미나 개최(10월)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ICS 국가표준 제정(12월)
2006년	•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 '한국형 웹 저작도구 접근성 지침' 등 TTA 단체 표준 제정(4중, 12월) • 웹 접근성 인식현황 실태조사(12월)	2011년	• '고령친화형 IT 표준화 포럼' 통합(5월)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정(9월)

## 2.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 현황

### 2.1 창립 및 주요 활동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은 2002년 5월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 및 주요 기능을 정립하였다. 포럼의 의장은 창립총회에서 한국정보문화센터 손연기 소장이 추대되었으며, 김효석 의원과 허운나 의원이 고문위원에 선임되었다. 그리고 정책분과위원장에 한국정보문화센터 조정문 박사, 정보통신 분과위원장에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교수, 웹 접근성 분과위원장에 충북대학교 김석일 교수를 각각 선출하였다. 각 분과를 중심으로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포럼 사무국은 한국정보문화센터

가 맡기로 하였다. 2002년 5월 창립 이후 국내 정보통신 접근성 표준화의 토대를 마련한 본 포럼의 주요 연혁은 〈표 1〉과 같다.

### 2.2 조직 현황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은 총회와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포럼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운영위원회는 포럼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총회의 위임사항을 다룬다. 본 포럼의 분과위원회는 정책 분과 위원회, 정보통신 분과위원회, 웹 접근성 분과위원회, 고령친화용품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분야별 기술 표준 및 정책을 개발한다. 사무국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맡고 있으며, 포

〈표 2〉 정보통신 접근성 주요 표준화 현황 및 내용

표준제목	주요내용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으로 인하여 웹 콘텐츠에 접근, 이용하는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불편 없이 웹 콘텐츠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시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	금융자동화기기(ATM)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사항 제시
디지털 음성 도서 지침 1.0	시각장애인, 저시력 장애인 등 활자 정보 접근 장애를 가진 독자들을 위한 디지털 음성 도서에 관한 규정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	장애인들이 제품이나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전자 문서 접근성 지침 1.0	전자문서에 포함된 사진, 그래프, 도표와 같은 모든 정보를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전자문서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제정
휴대전화기 키패드 접근성 지침 1.0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으로 휴대폰 키패드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휴대폰 키패드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제정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용량 2차원 바코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용량 2차원 바코드 표준에 대한 기술요소(코드 알고리즘)를 정의
장애인 웹 콘텐츠 사용성 지침	장애인과 노인들의 웹 콘텐츠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규격

럼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접근성 표준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분과위원회는 정보통신, 웹 접근성 및 고령친화용품 분과위원회이다. 정보통신 분과에서는 ITU, ISO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추진 중인 표준화 동향을 파악하여 웹 이외의 주요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표준 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웹 접근성 분과는 W3C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추진 중인 웹 관련 국제 표준화 및 관련 기술의 변화를 파악하여, 웹 접근성 관련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2011년 5월에는 사단법인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에서 u-Health 표준화 등을 추진하는 ‘고령친화형 IT 표준화 포럼’을 통합하여 고령친화용품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다.

### 3. 정보통신 접근성 표준화 추진 현황

본 포럼을 통해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이라는 2건의 국가표준을 제정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 ‘휴대전화기 키패드 접근성 지침 1.0’, ‘전자문서 접근성 지침’ 등 총 10건의 단체 표준을 제정하였다. 주요 접근성 표준 및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 4. 2011년 연구 목표


정보통신 접근성 분야의 인식 제고 및 표준화를 위해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은 2011년에 다음과 같은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개정 추진 :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 제조업자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정보통신제품의 구

매, 설계, 제작, 가공할 때 필요한 사항을 국내외 표준화 동향을 반영하여 개정(행정안전부고시 제 2011-32호, 2011년 7월 14일 개정)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개발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개발(행정안전부고시 제2011-38호, 2011. 9. 22 제정)
-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 개정 추진 : 미국 재활법 508조 등 국내외 동향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개정(2012년 완료 예정)
- 고령친화형 유헬스 서비스 및 제품의 요구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
- 고령친화형 유헬스 서비스 및 제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 고령친화형 유헬스 서비스 및 제품의 시험 및 인증

히 시각, 청각 등의 감각 장애인을 포함하여 지적장애인 분야와 시청각 중복장애 등 중복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참여 없이는 현실적인 접근성 표준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ISO, ITU, W3C 등의 국제 표준화 기구와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 추진하는 접근성 관련 표준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 및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지식정보화사회, 차가운 기술에서 벗어나 따뜻한 온정이 느껴지는 세상을 위해 모두가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 5. 맺음말

정보통신접근성향상표준화포럼은 2002년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국내외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표준화를 담당해 왔다. 앞으로도 장애인구 출현율 증가 및 고령화 등의 인구사회적 통계 변화와 미국 재활법 508조, 미국 21세기 법 등 접근성을 의무화한 법률 등에 따라 정보통신 접근성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 TV 등 다양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장애인 등이 신체적인 제약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관련되는 표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 작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개발자의 참여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용자, 즉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

